

Partner & NEWS

소니코리아, 제4회 4K/UHD 제작 워크숍 11월 7일 개최



소니가 방송사 및 제작사를 위한 4K/UHD 제작 워크숍을 11월 7일~9일 3일간 개최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 소니코리아 후원 및 진행으로 광주CGI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소니의 4K 캠코더와 라이브 HDR 워크플로우 소개를 기본으로 ‘4K 파일 기반 제작 워크플로우’ 세션에서 PXW-Z450, PXW-Z280 운용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하고, ‘4K 라이브 제작 워크플로우’ 세션에서 HDC-4300, XVS-8000, PWS-4500, HDRC-4000, BVM-X300 등의 운용 및 실습이 진행된다. 이밖에 ‘4K DI 제작 실습’ 세션에서는 4K 파일 편집 및 색보정과 4K HDR & HD SDR 파일 제작 등 HDR 제작 노하우가 교육될 예정이다. 소니는 지난 2013년 1회 제작 워크숍을 개최하여 관련 교육과 기술을 공유하여 교육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으며, 이번 4회에서는 최근 소니의 기술과 제작 워크플로우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상세한 교육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캐논, 아이패드 전용 DPP Express 발표



캐논은 EOS R의 국내 정식 출시와 함께 사진의 얼람, 이미지 편집, 편집한 이미지의 저장 등의 모든 기능들을 두루 갖춘 아이패드 전용 이미지 편집 애플리케이션 Digital Photo Professional Express(이하 DPP Express)를 발표했다. 1세대 버전으로 첫 출시된 DPP Express는 지난 10월 9일(화)부터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DPP Express는 PC 기반 DPP의 모바일 버전으로 아이패드의 직관적인 터치스크린 조작 방식을 적용해 손쉬운 편집이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용으로 새로 개발된 ‘퀵’ 편집 기능을 활

용해 아이패드 스크린 상의 사진이나 우측의 퀵 메뉴 터치만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사진 톤을 구현하기 위한 색감의 조정, 명료도 및 선에도 조절, 노이즈 제거와 같은 전문가의 영역에서 요구하는 편집 기능들을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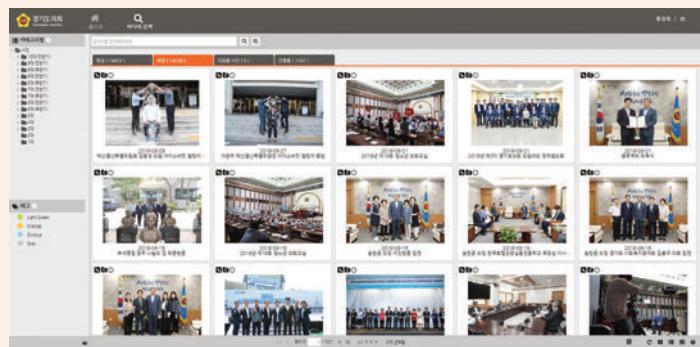
무엇보다 DPP Express의 큰 강점 중 하나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RAW 파일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이다. RAW 파일을 PC 환경에서 이미징 편집 툴을 사용할 때와 동일하게 캐논 카메라로 촬영한 RAW 파일들을 실행 및 편집 작업이 가능하다.

(주)디브이네스트, 2018 신제품 발표회 11월 8일 개최



디브이네스트가 신제품 발표회를 11월 8일 13시 30분부터 삼성동 섬유센터 17층 스카이뷰에서 개최한다. 이번 신제품 발표회는 하반기에 출시된 AJA, NewTek, Sonnet, BirdDog, Magix 등 디브이네스트가 취급하는 브랜드가 IBC 2018에서 선보였던 신제품들로 국내에 소개될 예정이다. AJA 제품은 KONA 5와 HDR Analyzer, IPR-10G2 HDMI/SDI가 1시간 동안 소개될 예정이고, 이후 BirdDog의 NDI PTZ 시리즈와 Sonnet의 Solo 10G NIC/eGFX 650, Magix의 VEGAS Pro 16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진다. 참석을 위해 디브이네스트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이 필수이며, 사전등록자에 한해 기념품과 경품 추첨 기회가 제공된다.

(주)제마나이소프트, 경기도의회 영상·사진 디지털 변환 및 아카이브를 위한 MAM 시스템 구축



경기도의회 아카이브 시스템의 사진 검색 화면

디지털 미디어 관리 플랫폼 전문 기업인 제마나이소프트가 경기도의회(www.ggc.go.kr)의 영상·사진 아카이브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 완료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오래된 영상·사진 자료들까지 모두 디지털화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관함으로써, 초대부터 2018년 제10대 의회에 이르는 전체 의회의 모든 영상·사진 자료 약 65만 건의 통합 관리와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효율적인 검색과 활용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도 구축하게 됐다.

이 사업은 특히 세 가지 내용에 무게를 두고 진행됐다. 먼저, 아카이브 시스템 장비를 도입해 의회 환경에 적합한 기능을 구축함으로써 콘텐츠 분류 방식과 자료의 표준화, 아카이브 관리 시스템 마련. 둘째, 테이프나 DVD, 필름 형태로 보관된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해 보존하고 디지털 자료의 검색을 위한 메타데이터 값 등록과 파일 변환 체계 구축. 셋째, 홈페이지를 통한 영상·사진 자료 제공 서비스를 구현해 대내·외 활용도를 극대화한다는 것이었다.